

眞心痛에 關한 文獻의 考察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

全燦鎔 · 曹基湖 · 李源哲 · 金永錫 · 裴亨燮 · 李京燮 · 具本泓

I. 緒 論

眞心痛은 六種心痛中 하나로서⁹⁾ 그 最初의 記錄은 黃帝內經·靈樞·第二十四·厥病篇에 “眞心痛 手足青至節 心痛甚 且發夕死 夕發且死”의 句文으로 나타나 있다.

心痛은 그 症狀으로 볼 때, 東洋醫學에서의 結胸·胸痺와, 西洋醫學에서의 胸痛(chest pain)과 類似하다고 본다.^{2,10)} 胸痛의 原因으로는 胸廓內臟器疾患, 胸廓疾患, 神經疾患, 消化器疾患, 神經症 등이 있으며, 그 中 特히 心臟性胸痛의 原因은 狹心症, 急性心筋梗塞症, 心筋炎, 僧帽瓣脫出症, 大動脈狹窄症 및 閉鎖不全症 등으로 나눌 수 있다.^{11,36,37)}

眞心痛은 그 症狀과 豫候에 있어서 急性心筋梗塞症과 類似하다고 볼 수 있는데¹⁰⁾ 卽, 症狀에 있어서, 眞心痛은 “心痛甚”, “如有刀割”, “如蟲咬·如蛇攢”^{9,16,20,25,28,30,36)} 등으로 表現하였고, 心筋梗塞에 있어서는 胸骨下部에 조이고, 누르고, 칼로 찌르는 듯한 痛症이 있으며 턱, 팔로 放射되기도 하는데, 그 痛症이甚하여 morphine 등의 麻藥으로 鎮痛이 可能하다.^{2,3,4,5,6,10,36,37,38,39)} 또, 豫候에 있어서, 眞心痛은 “且發夕死 夕發且死”, “一日卽死”, “且暮不保” 등으로 그 豫候가 不良한 死證으로 記述하였고,^{8,11,13,16,19,20,22,24,25)} 心筋梗塞症에서는, 그 發作卽後の 死亡率이 30~40%, 1週日 以內的 死亡率이 85% 등으로 相當히 높은 致死率을 보이고 있다.^{2,3,4,5,6,7,10,36,37,38,39)}

이와 같이 眞心痛과 心筋梗塞症은 그 症

狀의 重함과 豫候의 不良性 등으로 보아 그 學問的 比較研究의 必要性的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우기 近來들어 食生活의 西歐化·老齡人口의 增加 등으로 癌·腦卒中和 더불어 心筋梗塞症이 成人의 三大死亡原因이 되고 있는 現實에서,¹⁰⁾ 眞心痛에 關한 研究의 必要性이 있으리라 思料되어, 歷代文獻을 통하여 그 部位, 原因, 症狀, 診斷, 豫候, 治療 등을 考察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眞心痛 手足青至節 心痛甚 且發夕死 夕發且死. ^{9,16,20,27)}

○有眞心痛者 大寒觸犯心君 又曰汚血衝心 手足青過節者 且見夕死 夕見且死 宜區別諸證而治之 無有不安之理. ^{13,24)}

○眞心痛 不知能愈 否乎?

若手足俱青至節不治. ¹⁹⁾

○其所致皆因外感六淫 內泊七情 或飲啖生冷果食之類 使邪氣搏於正氣 邪正交擊 氣閉塞鬱於中焦 遂成心痛 夫心迺諸臟之主 正經不可傷 傷之則痛 若痛心手足青過節者 則名曰眞心痛 眞心痛者 且發夕死 夕發且死. ²²⁾

○當胸之下 岐骨陷處 屬心之部位 其發痛者 則曰心痛 然心不受邪 受邪則爲眞心痛 且暮不保矣. ¹¹⁾

○心當岐骨陷處 居胸膈下胃脘上 心痛與胸脘痛自別也 心爲君子 義不受邪 故心痛 多屬心包絡病 若眞心痛 經言且發夕死 夕發且死 由寒邪攻觸 猝心痛 無聲 面青氣冷 手足青至節 溫散其寒 亦死中求活也 急用麻黃 桂

附 乾干之屬. 28)

○心爲諸臟主而藏神 其正經不可傷之而痛者 爲真心痛. 19, 23, 36)

○心爲諸臟主 其正經不可傷 傷之痛者 則朝發夕死 夕發朝死. 19)

○其痛甚 手足青過節者 是名真心痛 且發夕死 夕發且死 非藥物所能也. 32)

○真心痛 因內外邪犯心君 一日即死. 26)

○真心痛 即死不治 其久心痛者 是心之支別絡 爲風邪冷熱所乘痛故成疹不死 發作時痙久不得差也. 9)

○一心痛 卒急無藥 此鹽置刀頭燒紅 淬入水中 乘熱飲之吐痰而癒 此治法攪腸沙大痛 已死者立効. 11)

○其痛心 但在心 手足青者 即名真心痛 其真心痛者 且發夕死 夕發且死. 34)

○夫四臟厥逆而爲心痛者 從經脈而薄於心之分也 心爲君主之官 神明出焉 故心不受邪 若傷其臟而爲真心痛者 不竟日而死矣 善心乃太陽之火 應一日而透地 一周心氣傷 故不終日而死 夫寒熱天之氣也 青赤五行之色也 眞頭痛者寒至節 眞心痛者 青至節. 16)

○心痛者 非真心痛也 乃心包絡與胃脘痛也 … 眞心痛者寒邪傷其君也 手足青至節 甚則且發夕死. 36)

○有心痛者 卒然大痛 如有刀割 汗出不休 舌強難言 手足青至節 且發夕死 夕發且死. 25)

○人有眞正心痛 法在不救 然用藥得宜 亦未嘗不可生也 其症心痛不在胃脘之間 亦不在兩脇之處 恰在心窩之中 如蟲咬 如蛇攢 不得用飯不能 飲水亦不可 八 手足冰冷 面目青紅者 是也 夫眞心痛原有兩證 一寒邪犯心 一火邪犯心也.

寒犯心者 乃直中陰經之病 猝不及防 一時感之 立刻身死 死後必有手足盡紫黑者 甚則偏身俱青 多非藥食能救 以致急而不遑救也 倘家存葯餌 用人參一二兩 附子三錢 急煎救之

可以望生 否則必死.

若火犯心者 其勢雖急而猶緩 可以遠覓藥物 故不可不傳方 方以救人也 余言前證 正火邪犯心也 但同是心疼 何以辨其一爲寒而一爲熱 蓋寒邪舌必滑 而熱邪舌必燥耳 倘其辨爲火熱之心痛.

(臨床處方) 方用 … 救眞湯投之: 炒梔子三
戈炙甘草一戈白芍藥一
兩廣木香末二錢 石菖
蒲一錢

(藥理說明) 水煎服一劑而痛止矣 不必更用二劑 但痛止後必須忍飢一日 斷不再發 慎之 但既是眞心疼 宜用黃蓮 以直治心火矣 何以不治心而仍治肝也 不知肝爲心之母 瀉肝木之氣 則肝木助火 而心氣自平 瀉肝木 正善於瀉心火也 倘直瀉其心則必受傷 雖暫取効於一時而脾胃不能 仰給於心火 則生氣遏抑 必至中脘虛寒 又變成他症 此黃蓮之 所以不用而反用梔子也. 30)

Ⅲ. 考 察

眞心痛에 對한 歷代 諸家들의 文獻을 다 음과 같은 項目別로 分類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 眞心痛의 部位

大部分의 文獻이 眞心痛의 特定部位를 論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眞心痛의 部位는 一般心痛의 部位와 同一하리라 보여진다. 卽, 林 28)의 記述에 依한 “心當岐骨陷處, 胸膈下, 胃脘上”의 部位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表面的인 心痛部位는 같더라도 裏面에서의 病變部位는 相同치 않으니, 卽, 心은 君主之官으로서 心包絡이 代行하므로, 一般의 心痛은 心包絡의 病變인데 反해 眞

心痛은 心經 自體의 病變이라는 것이다. 16, 23, 25, 28, 36)

以上을 考察컨데 眞心痛의 部位를 表面的 疼痛部位는 一般의 心痛部位와 같다고 볼 수 있고, 裏面的 病巢部位는 心經正經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眞心痛의 原因

歷代醫家들이 認識한 眞心痛의 原因을 列擧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大寒觸犯. 13, 24)
- ② 汚血冲心. 13, 27)
- ③ 心之支別絡 爲風邪冷熱所乘痛. 9)
- ④ 夫眞心痛 原有兩證 一寒邪犯心 一火邪犯心. 30)

李¹⁰⁾의 研究에 依하면 一般의 心痛을 三因分類하여 內因은 七情·思慮·氣逆·陽虛로, 外因은 寒邪·六淫·風寒熱邪로, 不內外因은 痰飲·停食·虵蟲·死血로 보았고, 李¹¹⁾의 研究에서는 眞心痛의 原因을 一般의 心痛의 原因과 거의 類似하다고 報告했다.

大部分의 文獻에서 寒邪를 病因으로 보고 있으며, 10, 11, 13, 30) 寒邪가 또한 後項의 病證·施治와 가장 類似하게 符會하고 있다.

3. 眞心痛의 症狀

內經에서는 16) 眞心痛의 症狀을 “手足青至節, 心痛甚”이라 하였고, 그 以後의 歷代醫家들의 觀察로 其外 症狀들을 認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列擧하여 보면,

- ① 心痛甚 9, 16, 20, 25, 28), 猝心痛 28), 卒然大痛 25), 如有刀割 25), 如蟲咬如虵攢. 30)
- ② 手足青至節 9, 16, 20, 25, 28, 36), 手足青過節 13, 22, 24, 32), 手足永冷 30), 面青氣冷 28).
- ③ 無聲 28), 舌強難言 25).
- ④ 汗出不休 25)
- ⑤ 不待用飲不能 飲水亦不可入 30)
- ⑥ 咬牙切齒 25)

⑦ 夫眞心痛原有兩症…寒犯心者…死後必有手足盡紫黑者…甚則偏身俱青, …若火邪犯心者…其勢雖急而猶緩… 30)

以上을 考察컨데, 眞心痛의 症狀中 主症인 心痛外 青色症 等の 大部分이 寒證으로서 甚至於 亡陽證인 汗出不休까지도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 便宜上 이들을 主症과 副症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主症: 手足青至節·心痛甚.

副症: 無聲·舌強難言·汗出不休·不待用飯不能 飲水亦不可入·咬牙切齒.

4. 眞心痛의 診斷

歷代文獻에서의 眞心痛의 診斷에 關한 言及은 매우 적고, 대개는 眞心痛의 症狀 및 豫候로서 眞心痛을 診斷내린듯 하다.

錢³⁰⁾에 依하면, 眞心痛을 病因에 따라 兩種으로 나누어 辨證을 하였는데, 卽 “寒邪舌必滑, 熱邪舌必燥”로 이를 診斷하였다.

張¹⁶⁾에 依하면, 眞心痛과 眞頭痛을 鑑別 診斷하였는데, 卽 眞心痛은 “青至節”, 眞頭痛은 “寒至節”으로써 이들의 鑑別은 “夫寒熱天之氣也, 青赤五行之色也”¹⁶⁾라는 病理學的 解說로 얻어졌다.

5. 眞心痛의 豫候

內經以來로 大部分의 醫家は 眞心痛의 豫候를 必死 乃至는 不治로 認識한듯 하다.

卽, “且發夕死 夕發且死 13, 16, 19, 20, 22, 24, 25, 27, 28, 32, 34, 36).

“一日卽死 26)”. “且暮不保 11)” 等の 記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俱體的 狀況·豫候觀察도 있었는데, 卽, “若手足青至節不治 19)”. “久心痛者…成疹不死 發作時疼 久不得差也 9)”. “夫眞心痛原有兩證…寒犯心者…立刻身死, …火犯心者…勢雖急而猶緩 30)” 등의 記錄이다.

大概의 眞心痛이 不治의 重症이지만 各己

의 狀況에 따른 豫候의 觀察 努力에 힘입어 下項의 治療成果도 있게 되었으리라 思料된다.

6. 眞心痛의 治療

前項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眞心痛의 治療·豫候가 極히 悲觀인 反面에, 一群의 醫家들은 이의 治療에 努力한 部分이 있다. “不暇展治¹⁹⁾”, “非藥物能療³²⁾”의 疾病에 對한 이들의 治療 努力을 살펴본다.

① 溫散其寒·急用麻黃 桂附 乾干之屬²⁸⁾.

② 以監置刀頭燒紅, 淬入水中, 乘熱飲之, 吐痰而愈, 此治法 攪腸沙大痛, 已死者立効¹¹⁾.

③ 眞心痛原有兩證, …寒犯心者…人參一二兩, 附子三戈, 急煎救之, 可以望生…火犯心者…救眞湯: 炒梔子三戈 炙甘草一戈 白芍藥一兩 廣木香末二戈 石菖蒲一戈³⁰⁾.

以上을 보건데 眞心痛의 治療는 溫陽之劑로서 逐寒하는 本草方劑가 多數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大寒觸犯의 病因과 手足青至節·面青氣冷·汗出不休 등의 寒證에 對한 適合한 治法으로 보여진다.

또 具²⁾ 등의 飲食藥忌를 보면 數日間의 缺食, 3~5日間의 服藥後 米飲·稀粥等 調理後의 漸進의 食事を 권하고 있다.

IV. 論 結

眞心痛이란 “手足青至節 面青氣冷 心痛甚 且發夕死 夕發且死”하는 疾病으로서, 이에 對한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眞心痛의 部位는, 表面的으로는 一般의 心痛部位와 같은 “心當岐骨陷處”이며, 裏面的으로는 一般의 心痛이 心包絡임에 對해 心臟正經에 有病하다.

2. 眞心痛의 原因은, 大寒·汚血·風邪·一寒一熱 등이며, 그 중에서도 寒邪가 主因이다.

3. 眞心痛의 症狀은, “心痛甚 手足青至節 面青氣冷”이며, 이는 寒證에 屬하고, 더욱 深化되어 亡陽證에 이르면 “汗出不休”하게 된다.

4. 眞心痛의 豫候는, “且發夕死 夕發且死”의 重證으로서 一日以內에 死한다고 하였다.

5. 眞心痛의 治療는, 溫陽散寒을 한다.

V. 參 考 文 獻

1. 康命吉: 濟衆新篇, 杏林書院, 서울, 1976, pp.136-137.
2. 具本泓外: 東醫心系內科學, 書苑堂, 서울, 1989, pp.51-58, p.190.
3. 김재식: 臨床病理學概論, 學文社, 서울, 1985, pp.146-147.
4. 서울대의과대학: 심장학, 서울대출판부, 서울, 1987, pp.1-5, 225-234.
5. 徐正燾: 요약심장학, 高麗醫學, 서울, 1987, pp.221-236.
6. 李文鎬: 內科學(上), 學林社, 서울, 1986, pp.18-25, 54-58.
7. 李鳳教: 漢方診斷學(Ⅱ), 成輔社, 서울, 1986, pp.190-192.
8. 黃度淵: 醫宗損益, 醫藥社, 서울, 1976, pp.245-251.
9.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1, pp.140-142, 262-272.
10. 李相敏: 文獻上으로 본 心痛原因의 漢醫學의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4.
11. 李原益: 眞心痛과 心筋硬塞症에 關한 東西醫學의 比較 고찰,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6.
12. 龔廷賢: 濟世全書(下), 新文豐出版公社, 臺北, 1982, pp.555-565.
13. 龔廷賢: 壽世保元(上), 宏業書局, 臺北, 1986, pp.313-320.

14. 龔廷賢：萬病回春(上)，大中國圖書公社，臺北，1985，pp.41-42.
15. 廣州中醫學院：Chinese-English Glossary of Common Terms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Joint Pub.Co, Hongkong, 1982, p.168.
16. 馬元臺張隱庵：黃帝內經張馬合註，臺聯國風出版社，臺北，1981，p.214.
17. 方賢：奇効良方，成輔社，서울，1977，醫部全錄 22 冊，pp.145-146.
18. 徐學山：醫學門經，新文豐出版公社，臺北，1977，p.329.
19. 巢元方：諸病源候論，集文書局，臺北，1976，pp.169-171.
20. 孫思邈：千金要方，自由出版社，臺北，1959，p.239,243.
21. 楊士瀛：仁濟直指方，東醫社，서울，1977，pp.45-46.
22. 嚴用和：濟生方，成輔社，서울，1977，醫部全錄 22 冊，p.129.
23. 虞天民：醫學正傳，醫學社，서울，1973，p.347.
24. 王壽：外臺秘要，國立中國醫藥研究所，臺北，1964，pp.196-206.
25. 李用粹：證治彙補，日新文化社，서울，1983，pp.339-347.
26. 李梴：醫學入門，國風出版社，臺北，1973，p.52.
27. 任應秋：黃帝內經章句索引，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6，p.342.
28. 林珮琴：類證治裁，成輔社，서울，1980，pp.407-412.
29. 張介賓：景岳全書，臺聯國風出版社，臺北，1980，pp.435-450.
30. 錢鏡湖：辨證奇聞全書，甘地出版社，臺北，1980，pp.147-148.
31. 曹孝忠：聖濟總錄，新文豐出版社，臺北，pp.481-482.
32. 朱震亨：丹溪心法(下)，大星文化社，서울，1982，pp.527-533.
33. 中醫研究院：中醫症狀鑑別診斷學，人民衛生出版公社，北京，1987，pp.233-235.
34. 扁鵲：難經，高文社，서울，1975，60 難.
35. 丹波元堅：雜病廣要，成輔社，서울，1986，pp.1112-1130.
36. Andreoli:Cecil Essentials of Medicine, SB Saunders Co.,1986, Philadelphia,pp.10-15, 71-80.
37. Eugene Braun: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1th edt, Comparison Book, Mc Graw Hill Book Co., New York,1987, pp.4-5, 274-278.
38. Peter Armstrong:Diagnostic Imaging,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Singapore,1987, p.111, 113.
39. Jania J.Phillips: Cardiology, A Wiley-Phoenix Publication,New York, 1987, pp.60-82.

ABSTRACT

The Literatural Study of True Heartache

(Chan Yong, Jun. Ki Ho, Jo. Won Chol, Lee. Yong Seok, Kim.
Hyung Sup, Bhae. Kyung Sup, Lee. Bon Hong, Goo.)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d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e true heartache is a condition of severe heartache corresponding to angina pectoris, as recorded from Hwang Jae Nai Kyung.

According to the literatural study of true heartache, some results can be acquired, such as follows.

1. The site of the true Heartache,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its superficial and conscious area is the chest as same as the other heartache.
But its inner lesion is the Heart-Meridian as others occupied at the Pericardium-Meridian in stead of the Heart-Meridian.
2. The etiological classification of true heartache, are Cold-evil, Heat-evil, Wind-evil, Blood stasis etc.
But its major factor is Cold-evil, more than anything else.
3. The symptomatic signs of true heartache, consist of cyanotic change from hands and feet to phalanges; severe heartache pale complexion with cold breathing and its extreme state can manifestate unceased sweating called as Yang exhaustion.